



밀알&세계

3

2023 | VOL. 265

MILAL & WORLD

밀알과 교회

팬데믹 이후 성도들의 교회출석이 많이 줄어 들었다. 미디어의 발달로 교회에 가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교회에 가려면 정장을 하고 가야 하는데 집에서 아무렇게나 입고 예배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받으신다는 것이다. 앞으로 더 발전하면 교회 건물은 없어지고 미디어로 예배하는 시대가 온다고 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걱정이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형태에 큰 변화가 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주일예배만큼은 반드시 교회에 가서 정한 시간에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좋겠다. 우리 장애인들이 이렇게 예배시간을 잘 지켜 예배드리면 전도의 문이 조금씩 열려지리라 믿는다. 안 믿는 가족이나 식구 중에도 장애인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드리면 전도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이다.

어느 교회에서 주일에 교회를 떠나 야외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게임을 즐기다가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주일은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엔 꼭 교회 가서 예배드리길 바란다. 우리 밀알은 주일을 피해 집회를 가진다. 왜 밀알이 주일은 모임을 갖지 않고 주중에 모임을 갖는가 생각해 봐야한다.

엄밀히 말해서 밀알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일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밀알이 주일은 모임을 가지지 않고 있다.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이 날만은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밀알 모임도 가지지 않는다.

밀알 사역자들이 주일에 장애인들의 주일예배를 인도하기도 한다. 그 중에는 밀알 교회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개별교회 중심으로 주일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밀알 자체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다. 이 밀알의 정신은 교회를 존중히 여기고 교회의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예수 믿지 않는 형제, 자매가 밀알에 나와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면 반드시 지교회로 인도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밀알은 선교단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밀알은 교회로부터, 그리고 교인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운영된다. 밀알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밀알을 섬겨야 한다.

우리 워싱턴밀알은 교회 건물을 기증받았다. 주일은 밀알 집회를 하지 않고 복음장로교회가 예배를 인도하며 주일을 지키고 있다. 밀알 사역자들은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주일 예배를 장애인들과 함께 드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지교회를 방문하여 밀알 사역을 소개하고 후원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교회에서 초청하면 주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한다. 후원하는 교회를 방문하는 데도 1년에 한번 가기가 힘들 정도다. 밀알과 교회의 관계를 바로 알고 정립함으로 밀알사역이 더욱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란다.

밀알 목사도 성례를 베풀 수 있다. 목사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학습을 베풀고 세례를 베풀며 성례를 집행하여 예수님의 삶과 피를 나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배하는 것도, 성례를 베푸는 것도 장애인이 중심이 되어 하늘나라를 넓혀 나가야 한다.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밀알선교단이 되어야 한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즐거움을 준다든가 게임이나 레크리에이션을 한다면 그 모든 활동은 중지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밀알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풍족하게 지원받아 밀알 장애인 사역을 더욱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밀알의 모든 사역자와 단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글 | 정택정 목사 (워싱턴밀알 단장)



표지사진:

지난 1월 23일~27일, 2023년 미주밀알 단장회의가 브라질밀알에서 열렸다. 미주밀알 단장, 지소장들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국경이 만나는 지역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차례

- 02. 칼럼
밀알과 교회
- 04. 작지만 큰 변화
달라스의 겨울나기
- 06. 신앙단상
미드라쉬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능력
- 08. 아름다운 추억
달빛
- 10. 함께하는 즐거움
마이애미밀알 선셋 사랑의교실
- 12. 행사 스케치
2023년 미주밀알 단장회의
- 14. 밀알과 함께
밀알이 그냥 좋아요, 예배도 너무 좋구요, 친구들은 더욱 좋아요!
- 16. 새로운 시작
밀알과 함께 하는 뉴저지 선교사의 집

밀알&세계

남가주 • 북가주 • 시애틀 • 밴쿠버 • 텍사스 통합판

통권 제265호 | 2023년 3월호
발행인: 이재서 | 편집인: 최재휴 | 편집책임: 이준수

지역별 구독문의
남가주: 562-229-0001 | 북가주: 408-605-2134
시애틀: 425-444-1669 | 밴쿠버: 604-339-4417
텍사스: 682-561-9826

월간 <밀알&세계>는 장애인들과 함께하길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정성껏 만듭니다.

월간 <밀알&세계>에 관한 좋은 의견이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mweditor@milalsca.org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작지만 큰 변화

달라스의 겨울나기

예전에 달라스는 겨울에 한, 두 번 비가 올 정도의 건조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가 오는 날이 많이 늘었고, 몇 년 전부터는 2월에 한파가 한 번씩 오고 있습니다. 이런 달라스에서

작년 9월에 5명으로 사랑의교실 2022~2023년 학기를 시작했는데, 어스새 지금은 10명의 장애인이 사랑의교실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학령기에 해당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성인도 절반이 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달라스의 날씨 변화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한시도 핸드



폰을 놓지 않던 이는 이제 사랑의교실에 오면 핸드폰을 손에서 놓게 되었고, 자기에게 관심 가져주기만을 원했던 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아주 작은 걸음의 변화도 보입니다. 그 외 청년 성경공부 모임, 사랑 섬김 사역, 뇌졸중 중도 장애인 모임, 청년오케스트라 및 아카데미 등 여러 다양한 활동도 꾸준히 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모양의 길을 앞에 놓고 한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장애인으로 7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일에 개인적으로 앞장섰고, 다른 장애인을 여러 모양으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섬겨왔던 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에 다시 한번 초심을 붙잡아봅니다. 그 분이 그러셨어요. “내가 여러 다른 것들을 해보았지만, 한 가지만은 변하지 않고 분명하더라... 영혼 구

원하는 것, 이것밖에 남는 게 없더라” 다른 일들이 덧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제 마음이 답했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달라스의 거울을 주님의 가르침으로 나고 있습니다.

글 | 채경수 목사 (텍사스밀알 단장)

미드라쉬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능력

최근에 ‘미드라쉬(midrash)’라는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알게 되었다. ‘미드라쉬’는 ‘탐구하다’ 혹은 ‘조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유대의 랍비들이 성경 속에 숨어 있는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 사용했던 문학 기법이나, 문학 작품, 더 나아가, 문학작품들의 모음집들을 일컫는다.

미드라쉬의 한 전승에는 다음과 같은, 모세의 유아기 시절의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어느날, 아기 왕자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바로(Pharaoh)와 함께 놀고 있었다. 바로의 반짝거리는 왕관에 호기심이 생긴 어린 아기 모세가 자신의 손을 뻗어 바로의 왕관을 만지려고 했다. 항상 자신의 왕위에 대해 염려했던 바로는 이 어린 아기 모세의 행동에까지 의심과 두려움을 가졌다. 그래서 모세를 시험해 보았다. 두 개의 그릇을 준비하였는데, 하나의 그릇에는 금과 보석이 담겨있었고, 다른 하나에는 불이 붙어있는 숯불이 들어있었다. 만약 모세가 금과 보석이 담긴 그릇을 선택한다면, 모세는 바로를 배반하고 그의 왕위를 찬탈할 반역자가 되고 마는 상황이 되었다.

아기 모세는 당연히 아름다운 빛깔의 금과 보석이 담긴 그릇을 잡으려 했다. 이제 모세의 운명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인가? 하지만 그 찰나 하나님의 천사가 모세를 보호했다. 모세의 손을 가로 막았다. 그러나 그 대신 모세의 손이 숯불로 향했고, 본능적으로 숯불을 자신의 입술에 가져가게 된 모세는, 그 뜨거운 숯불로 인해 혀에 큰 상처를 입고 말았다. 이 절대 절명의 사건을 구사일생으로 넘기기는 했지만, 이 사건 이후로 모세는 언어장애를 갖게 되었다.


우리에게 이 미드라쉬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가 진짜인지 허구인지는 그리 중요한 것 같지 않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 속 모세가 실제로 언어적인 어려움이나 장애를 겪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학정에서 구원하라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한 바 있다, “나는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출 4:10). 모세의 이런 변명에 하나님께서도 아마 동의하신 모양이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말 잘하는 자신의 형, 아론과 동역하라 하시고, 아론으로 하여금 모세를 대신하여 대중 스피치를 담당하게 하셨다.

한 가지 질문이 든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광야생활 40년으로 이미 나이는 나이대로 많이 먹고, 자신감도 능력도 다 없어져서, “저는 못해요.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라고 항변하는, 게다가 언어장애로 말조차 제대로 똑똑하게 못하는 답답한 모습의 모세를 부르시고 사용하셨을까? 어쩌면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 모세의 광야생활 40년을 묵묵히 기다리셨는지도 모른다. 늙고 무능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더 온유해지고 겸손해진 모세의 입에서, “하, 하, 하나님, 저, 전... 진, 진짜로, 아, 아, 아무것도 못해요.”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말이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 몸의 여러 기능들이 정말 예전 같지가 않다. 몇 주전부터는 양쪽 엄지손가락에 류마티스 관절염마저 찾아왔다. 병뚜껑 하나 여는 것도 그리 쉽지가 않은 현실을 마주하게 되니, 사실 한 동안 기분이 좀 우울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내가 언어장애를 가진 모세와 얼마나 신나게 대화를 하곤 했었는지 아니?” 그렇다! 언어장애인 모세는 하나님과 소통을 누구보다도 더 잘 했던 성경상의 인물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출33:9-11)

올해의 기도제목이 한 가지 더 생겼다.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대면하여 소통하는 것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달변가는 달변가대로, 놀변가는 놀변가대로 사용하

A white ceramic cup filled with dark coffee sits on a matching saucer. In the background, a pen lies on a surface next to an open book with visible text. The scene is softly lit, creating a calm and studious atmosphere.

시고, 우리
의 능력이나
장애와 관계없이
이렇게 약속하신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
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을 믿어야 할 지니라(히 11:6).”
우리의 약함과 장애에 상관없이,
우리 밀알가족들을 너무도 사랑하시
는 참 좋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찾으며, 그분과 친구처럼 소통하는 멋진
소망의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본다. 🌊

글 | 양희원 교수

(남가주밀알, Cal. State Long Beach, Dept of Recreation
and Leisure Studies)



■ 아름다운 추억

달빛

주차장에 차를 대고 집안에 들어서려다가 나도 모르게 고개가 하늘로 향한다. 휘영청 밝은 달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 “아, 오늘이 보름이구나!” 크고 둥그런 달이 하늘 중앙에 떠있다. 똑같은 달인데 머나먼 타국에서 바라보는 달은 그 느낌이 다르다. 벌써 오랜 세월 달을 만나고 달을 바라보며 꿈을 꾸었는데, 그 달을 바라보고 있어도 옛 정감이 살아나지 않는 것은 내가 변질된 때문일까? 역시 달은 고요 속에서 바라보아야 정감이 넘치는가 보다. 하얀 눈이 쌓인 추운 겨울 밤에 시골 들판을 ‘쁘드득’ 소리를 내며 걷다가 잠시 멈추어 서서 달을 바라본 적이 있는가? 그때 만난 달은 ‘신비’ 그 자체였다.

전기가 없이 자라던 어린 시절에는 둥근 보름달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다른 때는 ‘귀신이 나온다.’고 겁을 먹고 지나던 곳도 달빛이 비취이면 보무도 당당하게 거들먹거리며 걸어간다. 다리가 불편한 나를 어머니는 자주 업고 다니셨다. 어두운 밤길에는 어머니 등이 나의 유일한 자가용이었다. 엄마 등에서 바라보는 달은 더없이 정겨웠다. 그런데 이상하다. 달이 나를 자주 따라온다. 천천히 걸으면 그 속도에 맞추어서 따라오고 빨리 걸으면 달도 빨리 달려온다. “엄마, 달이 나를 쫓아오네! 엄마가 빨리 걸으면 빨리 따라오고 천천히 걸으면 속도가 느려진다.” “달이 재철이를 좋아하는가 보다.” 나는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엄마 등을 두드리며 웃었다.

경기도 포천에서 태어나 7살이 되던 정월 보름날, 엄마는 나와 누이를 이끌고 별판으로 나갔다. 이미 동네 형들은 강통에 불을 담아 ‘취불놀이’를 하고 있었고 짚단에 붙은 불은 불만하게 타고르고 있었다. 나를 세워 놓고 내 둘레를 어머니가 불로 휘감고 지나가셨다. “달님, 달님. 우리 재철이 병이 다 낫게 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무서웠지만 기분이 좋았다. 하나님을 모르던 어머니는 불기운으로라도 아들의 장애를 치료하고 싶으셨나 보다. 달을 한참 쳐다보다가 나도 모르게 중얼거린다. “한국에서 보던 달과 같은 달인데 고국은 정말 멀구나” 갑자기 어린 시절에 바라보던 달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왔다.

둥근 보름달만 운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수줍은 새색시에 눈썹 마냥 가느다란 초생달은 저만치 숨어있는 인생사를 아는 듯 피어오른다. 반달은 수많은 동요를 탄생시켰고, 서서히 형체를 찾아가던 달은 정월 대보름이 되면 둥그런 얼굴을 드러내며 환한 미소를 짓는다. 계수나무 아래에서 절구 방아를 찧

는 옥토끼네 부부의 변함없는 사랑노래도 저 달빛을 타고 내려앉는다. 달이 지고 또다시 달을 채워가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은 달빛 아래에서 사랑을 나누고 추억을 만들어 왔을 것이다. 그 옛날 손에 손잡고 빙빙 돌면서 ‘강강술래’를 부르던 해안 처녀들의 자주댕기와 하얀 치마저고리, 외씨보선도 달빛이 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달빛은 차가우면서도 따스하다. 싸늘한 듯 냉정하면서도 포근하고, 도도한 듯 새침하다가도 때로는 수수한 입김으로 만물을 어루만진다. 달빛은 그래서 신비로운가 보다. 해는 바라보기가 힘겨워 포기하고 말지만, 달은 아무리 바라보아도 질리지 않는 매력이 있다. 같은 달이지만 달빛에서 받는 느낌은 그 사람의 경험이나 감정에 따라 다르다. 살아가면서 가끔은 달빛 앞에 서보자. 휘황찬란한 오색의 간판과 네온들로 하여금 밤이 더 산만하고 거칠어진 시대에 살지만, 때로는 두고 온 내 고향 언덕에서 바라보던 그 달빛 앞에 다시 서보자. 진달래가 달빛 타고 피는 봄 밤을, 풀벌레가 달빛피리를 부는 여름 밤을, 억새꽃과 기러기가 만월 속에서 서걱이거나 날아가는 가을밤을, 그리고 나목이 추운 밤, 산등성을 따라 민그림자를 뜨겁게 뜨겁게 그어내는 겨울 달빛 앞에 우리 모두 서보자!

달빛은 또 다른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어 줄 것이다. 달빛은 오늘밤도 그대의 지치고 노곤한 몸을 잠시나마 편안하고 그윽하게 비추어 주리라! “강(江)나루 건너서 밀밭 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 길은 외줄기 남도(南道) 삼백리(三百里) 술 익은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박목월’님의 시 <나그네>이다. 또 이런 시도 있다. “달이 아직도 지구를 떠나지 못하는 것은 지구에 달맞이꽃이 피기 때문입니다/ 도시인들이 이렇게 까지 삭막해진 것은 달빛을 받지 못하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달빛이 가슴에 내려앉는다. 🌕

글 | 이재철 목사 (필라델피아밀알 단장)



■ 함께하는 즐거움

마이애미밀알 선셋 사랑의교실

선셋장로교회'는 마이애미밀알 토

요 사랑의교실이 열리는 두 교회 중 한 곳입니다.

영어와 스페인어로 예배를 드리는 미국 장로교회로 매달 넷째 주 토요일 오전에는 교회 인근의 홈리스들을 위해 아침을 제공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 첫째 주 토요일 1시에는 장애인 친구들을 위한 사랑의 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밀알과 함께 장애인 사역을 시작한지 올해로 3년째입니다. 지난 2년 동안은 선셋교회의 장애인 친구들을 섬기는 사역이었지만, 지난해 말부터는 한인교회 장애인 친구들도 함께 모여서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4일에는 선셋 사랑의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제일 많은 친구들과 봉사자 선생님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총 7명의 친구들과 7명의 선생님, 그리고 두 분의 학부모님을 포함하여 총 16명의 가족들이 축제와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6살인 '루다'와 '지노'로부터 머리가 하얀 할머니 선생님까지 시끌벅적한 시간이었습니다. '브라이스' 목사님의 기도를 시작으로 찬양과 율동도 하고,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루다와 지노는 함께 하는 내내 분주하게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다녔고, 고등학생 봉사자 '예람이'도 덩달아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언니 ‘예술이’는 어느새 선셋교회가 집처럼 편안해졌는지 운동화를 벗고 마룻바닥에 털썩 앉아 자리를 잡으면 예술이와 늘 짝을 이뤄 섬기시는 ‘낸시’도 당연하다는 듯이 예술이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늘 안전한 ‘코트니’와 ‘미조’는 각각 ‘킴’과 ‘예나’와 함께, 자기 주장이 뚜렷한 ‘크리스찬’은 제일 연세가 많으신 ‘라즈’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예세니아’는 혼자서도 끝까지 멋진 작품을 완성합니다. 예세니아가 늘 사랑의교실을 기다리고 있고 여기 오는 것이 너무 좋다고 제 눈을 보고 말해줄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량을 조금씩 넓혀주셔서 한 주 더 만날 수 있고 몇 십분이라도 더 오래 교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 더 사모하며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다 보면 사진을 찍을 여유도 없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친구들이 각자 만든 작품을 들고 기념 사진 찍는 것은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처 사진을 다 찍어주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으로 집에 오면 브라이스 목사님과 학부모님들이 내가 놓친 멋진 순간들이 담긴 사진을 보내주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답고 완벽한 토요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

글 | 박민선 집사 (마이애미말 지소장)



■ 행사 스케치

2023년 미주밀알 단장 컨퍼런스



미주밀알선교단 내 19개 지단, 지소의 책임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2023년 새해의 사역을 함께 도모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미주밀알 단장 컨퍼런스가 지난 1월 23일~27일까지 브라질밀알선교단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 새 회기를 계획하는 총단장 최재휴 목사(애틀랜타밀알)의 인도로 시작된 전체회의는, 부총단장 장영준 목사(시애틀밀알), 서부지역협의회장 이종희 목사(남가주밀알), 중부지역협의회장 남성우 목사(시카고밀알), 동부지역협의회장 강원호 목사(뉴저지밀알), 중남미지역협의회장 최은성 목사(브라질밀알) 등의 총단위원회 활동과 함께 2022년도 재정과 사역에 대한 결산보고 및 2023년 사역의 계획과 예산안보고 등의 사역보고들이 있었습니다.

미주밀알은 4개의 지역협의회로 분할하고 각 지역협의회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함께 사역을 공유하며, 교제하는 일들을 조직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름 사랑의캠프를 함께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멈추었던 사랑의 캠프를 올해는 다시 시작하는 계획을 가지고 각 지역협의회 산하 지단들과 함께 고민하며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주밀알의 각 지단은 재정자립이 아직 어려운 지소들과 장애인 사역이 필요한 새로운 지역에 연락소 및 지소를 개척하는 활동을 연합하여 함께 지원하며, 밀알운동이 세계적인 장애인 사역의 연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주밀알의 각 지단과 지소의 사역

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소외되지 않고 예배와 은혜의 자리에 초대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장애인이 앞서는 세상을 만들며 존중받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를 격려하고 깨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밀알이 되고자 기도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주밀알선교단은 북미와 남미의 19개 지역에서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의 사역을 함께 하고 있으며, 한국총단과 유럽총단과 교류하며 함께 세워가는 세계밀알연합의 지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밀알사역을 통하여 영광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글 | 김정기 목사
(미주밀알 사무국장, 북가주밀알 단장)



■ 밀알과 함께

밀알이 그냥 좋아요, 예배도 너무 좋구요, 친구들은 더욱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무엘'이라고 합니다. 올해 만 41세이고 퀸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어요.

밀알은 인투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밀알이 뉴욕장로교회에서 모일 때 처음 가보았습니다. 그때는 마침 집에

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서 부담 없이 토요일에 맛있는 점심 먹으러 갔던 것 같아요. 카레와 흰밥, 만두, 오뎅, 김까지 제공되는 점심도 물론 맛있었지만, 예배가 아주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최소한 메인 포인트가 세 가지는 되고, 포인트마다 서브 포인트가 또 세 개씩은 달리는 설교에 익숙했던 저에겐 포인트가 딱 하나인 짧은 설교





는 기쁨이었습니다. 함께 설교를 듣는 친구들도 “골치 아퍼~”, “예수님?!” 등등 반응을 열렬히 해주어서 예배가 즐거웠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찬양을 부를 때는 또 목청껏 불러서 꾸뻑꾸뻑 거리는 성도들이 대부분인 다른 교회의 예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여서 좋았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친구들이 침 흘리며 다가와서 막 손 잡으려고 하면 침이 묻을까봐 꺼려지기도 했어요. “어, 어, 저리가.” 제가 방 청소는 잘 안 해도 깔끔은 떨어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곧 익숙해지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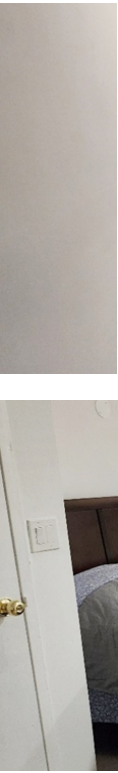
또 안 좋은 것일수도 있는데, 친구들이랑은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예요. “베이징이야?” “중국사람이야?”라고 하면 저도 베이징에서 왔다고 해요. 저희 부모님보다 “결혼해야지!”라는 말을 친구들이 저에게 더 많이 해요. 부모님한테 듣는 건 짜증도 나고 부담스럽기도 한데, 친구들에게 듣는 건 부담이 안되네요, 웬지~. 그리고 대머리인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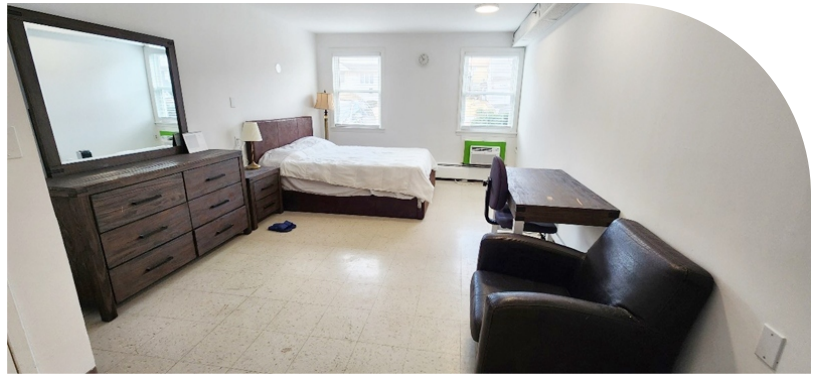
에게 자꾸 “머리 깎아~~”라고 해서 감사한 마음이 큼니다. 제 헤어스타일 걱정해주는 건 밀알 친구들뿐이에요.

제 남동생도 지적장애가 있어서 밀알에 같이 간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제 동생은 밀알 친구들과는 다르게 ‘1’인 것 같아서 요즘엔 가기 싫다고 해요. 정말 밀알 친구들은 다 ‘E’인 것 같아요.

한희준, 바다, 박완규, 강균성, 김창옥, 선예 등 밀알의밤과 갈라에서 때에 따라 많은 연예인도 볼 수 있고, 사랑의 캠프도 재미있어요. 친구들과 드리는 예배가 봉사자들에게 많은 걸 느끼게 하고,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더욱 의식할 수 있는 시간이 되듯이,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실 정도로 소외되고 힘드신 분들에게 예수님이 전파되었으면 좋겠어요. 🌊

글 | 이사무엘 (뉴욕밀알, 자원봉사자)





■ 새로운 시작

밀알과 함께 하는 뉴저지 선교사의 집

지난 2002년 ‘선의선교회’가 시작한 ‘선교사의 집’은 세계 각국에서 미국을 방문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쉼터로 그동안 뉴욕과 LA에서 활발하게 운영되었습니다. 모든 사역은 도네이션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 2023년, 뉴저지밀알 선교센터의 여유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김으로 ‘뉴저지 선교사의 집’이 새롭게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대상도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은 물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 자녀들에게까지 확장하여,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선교사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장애인 선교에도 관심을 가지셔서 현지로 돌아가 장애인 선교사역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주] ‘뉴저지 선교사의 집’은 밀알선교단 안에 있는 방 8개를 지난 2개월 동안 정성껏 꾸며서 2월 정식으로 오픈하였습니다. 시작과 함께 각지에서 온 선교사님 자녀들 20여명이 2월6일부터 10일까지 선교사의 집을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 널리 알려져서 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귀한 장소로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

글 | 백남걸 장로 (뉴저지밀알, 뉴저지 선교사의 집 대표)

■ 남가주

2023 사랑의캠프 펀드레이징

‘2023 사랑의캠프’가 6월22일부터 24일까지 2박3일동안 개최됩니다. 지난 2년동안은 COVID-19 방역을 위해 온라인 라이브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올해는 예전처럼 California State University at Long Beach Campus에서 사랑의캠프가 열려 예배, 세족식,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함께할 예정입니다.

2023 사랑의캠프 펀드레이징을 위해 물품판매를 진행합니다. 올해는 참기름(27불), 비프저지(35불), 커피방향제(22불), 핑크소금(20불) 등 4가지 품목을 판매합니다. 최근 물가 상승을 감안해 펀드레이징 물품들도 가격이 작년보다 약간씩 올랐으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남가주밀알 사무실로 연락주십시오. (Tel: 562-229-0001, Email: admin@milalsca.org)

매년 사랑의캠프 때마다 밀알가족 여러분이 적극 참여해주셔서 풍성한 재정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에도 깊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과 사랑이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LA 화요예배 (2월)

- 7일은 조영건 목사님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표기도는 윤모네 목사님이, 특송은 Inju Uyehara 사모님이 섬겨주셨습니다. 저녁 친교는 김중희 권사님과 조혜영 목사님이 준비해주셨습니다. 또 2월 생일 맞은 분들을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 14일은 이종희 단장님이 “밀알 성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표기도는 강은혜 권사님이, 특송은 제시카송 자매님이 섬겨주셨습니다. 또 저녁 친교는 Wayne & Inju Uyehara 목사님/사모님 가정에서 준비해주셨습니다.
- 21일은 신경섭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표기도는 김용주 전도사님이, 특송은 김독삼 집사님이 섬겨주셨습니다.
- 28일은 LA, OC밀알 가족들이 함께 월례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OC 목요일예배 (2월)

- 9일은 조영건 목사님이 “팔레스타인의 은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표기도는 이은철 목사님이, 특송은 신지혁 형제님이 섬겨주셨습니다. 또 1월 생일 맞은 분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고, 저녁 친교는 밀사모에서 준비해주셨습니다.
- 16일은 이재형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표기도는 백현 집사님이, 특송은 제시카송 자매님이 섬겨주셨습니다. 저녁 친교는 해피러너스에서 준비해주셨습니다.
- 23일은 최재휴 목사님(애틀랜타밀알 단장)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표기도는 이영주 사모님이, 특송은 가스펠교회(김병균 목사) 김정호 전도사님이 섬겨주셨습니다. 또 저녁 친교는 가스펠교회 제3여선교회에서 준비해주셨습니다.

- 28일은 LA, OC밀알 가족들이 함께 월례 기도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사랑의교실 (2월)

- 4일: 사랑의교실 6개 브랜치 모두 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2월 첫 수업을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 11일: 예배와 찬양 그리고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여러가지 craft activity를 하였습니다. 사랑으로 장애인 버디들을 섬겨주는 봉사자와 선생님 모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 18일: 성인 사랑의교실은 영화관람을 하였습니다. TORRANCE 사랑의교실은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25일: EAST LA 사랑의교실이 운동을 하였습니다. 봉사자와 버디가 체육활동을 함께하며 안전하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가주밀알 3월 기도제목

- 2023년 한 해 남가주밀알의 모든 사역을 통틀어 이끌어주시고,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장애인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 밀알가족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항상 주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 LA화요모임, OC목요일모임이 계속 은혜롭게 진행되어 밀알가족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 토요 사랑의교실 6개 브랜치가 은혜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되고, 교사,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참가자들도 적극적으로 예배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밀알 가족들의 삶과 생업을 지켜주셔서 은혜가운데 모든 필요가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 스태프와 모든 밀알가족들, 후원해주시는 교회들과 후원자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 감사가운데 2023년 말까지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 2023년도 밀알 장학생들이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일군들로 준비되고 학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 북가주

화요예배

- 첫째 주는 임마누엘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식사봉사로 섬겨 주셨습니다. 새누리교회의 힐링양상실에서 찬양 반주로 참여해 주셨고, 김정기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으로 ‘천국잔치’란 제목으로 설교해 주셨습니다.
- 둘째 주는 좋은땅교회의 성도님들께서 식사와 찬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신재명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고, 생일자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셋째 주는 한인장로교회로 방문하여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맛있는 저녁식사를 함께 나누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귀한 초대에 감사드립니다.

- 넷째 주는 시온영락교회의 밀알목장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맛있는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오랜만에 만난 성도들과 함께 반가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산타클라라 사랑의교실(청년밀알) 소식

- 청년밀알은 지난달 11일(토) 전반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 자원봉사자 워크숍을 잘 진행했습니다. 2분이 새로이 참석하셔서 청년밀알 친구들과 함께 하여 주신다고 하여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 청년밀알 참가자들 대상으로 워크숍을 했습니다.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친구들과 지내야 하는지 등의 Rules을 알려주었습니다.
- 청년밀알에 새로이 참석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밀알에 참석하였고, 이제 우리 청년밀알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함께 하며 즐거운 추억 만들어 가요.
-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함께 하트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무판자에다 하트 모양으로 풀을 바르고 그 위에 여러가지 색깔의 종이를 문쳐서 붙였습니다. 다 만든 후에 한 사람씩 나와서 누구에게 줄 것인지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데이빗이 몸과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산호세 사랑의교실 소식

- 매주 토요일 산호세새소망교회에서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지역교회의 유스 봉사자들과 친구가 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하여 친구가 되는 목적으로 모이게 됩니다.
- 태권도시간을 섬겨주시는 이영수 형제님(좋은땅교회)께 감사드립니다.
- 아트시간을 섬겨주시는 공은정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매주 토요일마다 즐거운 교제를 함께 할 청소년 봉사자들을 기다립니다. 장애인을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성숙한 성인이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는 Community Service Report를 발급해 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북가주밀알 3월의 기도제목

- 사랑의교실에 참여하는 밀알친구들과 가족들 그리고 봉사자들 모두가 기쁨의 교제가운데 위로와 힘을 얻도록 기도해 주세요.
- 화요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큰 위로를 주시고, 보람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올 6월에 열리는 2023 사랑의캠프를 준비하는 스태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밀알 가정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서로에게 의미 있고 힘이 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 섬기시는 교회와 단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연약한 지체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 북가주밀알의 스태프들이 기쁨으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시애틀

시애틀 사랑의교실

항상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2023년도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귀한 한 해 되길 소망합니다. 밀알 사랑의교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4일 개학하여 새로운 밀알 사랑의교실이 출발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한 친구들의 반가운 얼굴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이날 봉사는 UW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올해도 더 건강하고 은혜로운 사랑의교실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울러 여전히 밀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밀알의 모든 스태프들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준 목사 425-444-1669)

헤더럴웨이 사랑의교실

헤더럴웨이 사랑의교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2월4일(토) 방학을 마치고 개학했습니다. 반가운 얼굴로 예배드리고 점심식사와 액티비티를 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헤더럴웨이 중앙장로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수고해 주시는 이종열 전도사님과 송윤석 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봉사자가 속히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준 목사 425-444-1669, 이종열 전도사 253-228-7734)

시애틀밀알아카데미(S.M.A)

매주 화요일 정기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검도, 음악수업, 크래프트, 산책, 마트 장보기 등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10일 개학을 하여 다시 SMA의 모든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백필스 목사님께서 새롭게 오셔서 봉사해주셨습니다. 그날 주언약교회(박종천 목사님)에서 맛있는 점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검도와 음악과 미술 선생님께서 헌신해 주셔서 더 풍성한 SMA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더 많은 봉사자(남자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봉사자들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봉사자로 자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타코마밀알아카데미(T.M.A)

매주 목요일 타코마의 성인 장애인 정기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 음악수업, 체육, 크래프트, 산책, 견학 등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월9일 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한 친구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봉사자 이은혜 집사님과 딸(벨라)이 함께 오셔서 봉사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송 간사님과 밥 장로님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TMA에 체육과 미술 선생님, 그리고 남자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속히 구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봉사자들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밀알에 사무실과 사랑의교실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시애틀연합장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타코마 사랑의교실에 장소,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타코마중앙장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헤더럴웨이 사랑의교실에 장소,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헤더럴웨이중앙장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다.

- S.M.A 장소와 15인승 Van을 사용하도록 해주시는 시애틀 형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매월 1회 사랑의교실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시애틀연합장로교회, 시애틀형제교회, 온누리교회, 헤더럴웨이중앙장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알립니다

- 밀알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www.seattlemilal.com
- 시애틀형제교회 Star Ministry(장애인 주일학교)예배가 현장예배로 진행됩니다.
- 타코마제일침례교회(주일 오후 1시)에서는 사랑부(장애인)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장애인(자폐 및 지적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 예배를 소개해 주세요.
- 온누리교회에 장애인 주일학교(사랑부)가 있습니다.
- 오레곤 벨렐장로교회에 장애인 주일학교(사랑부)가 있습니다.
- SMA(시애틀 성인장애인 모임), 매주 화요일 오전 10:30~오후 3:00 성인장애인을 위한 예배와 활동(음악치료, 검도, 요가, 산책, 시장보기, 체육, 외부활동)이 있습니다. 주위에 성인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하실 봉사자가 있다면 밀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시애틀 형제교회 빌딩2, 109호)
- TMA(타코마 성인장애인 모임), 매주 목요일 오전 11:00~오후 3:00 성인장애인을 위한 예배와 활동(음악치료, 요가, 산책, 시장보기, 체육, 외부활동)이 있습니다. 주위에 성인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하실 봉사자가 있다면 밀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타코마중앙장로교회)

밀알에서 필요한 것

- 시애틀 사랑의교실 친구들의 사회적프로그램을 지원할 개인과 교회를 찾습니다. (견학, 스포츠게임, Dancing, 태권도 지도, 동물원관람 등 사회적프로그램 재정지원)
- 매주 토요일 사랑의교실에 필요한 점心和 간식을 제공해 주시고 봉사해 주실 교회나 단체, 개인이 필요합니다. (종이접시, 컵, 플라스틱 수저, 포크, 냅킨, 물도 필요합니다)
-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S.M.A와 T.M.A(성인장애인) 점심식사와 간식을 제공할 교회와 개인을 찾습니다. (15명)

기도해 주세요

- 2023년 밀알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장애인들의 건강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 장애인 사역에 헌신된 사역자와 봉사자를 보내주세요.
- 사랑의교실과 S.M.A & T.M.A 친구들과 가정, 봉사자를 위하여
- 새로 온 사랑의교실 장애인 친구들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맘껏 이용할 수 있는 '밀알아트센터'가 세워지도록
- 밀알의 모든 스태프들과 사역들을 통해 장애인 전도/봉사/계몽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 밀알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 매주 화요일 진행되는 성인장애인의 모임인 Seattle Milal Academy를 위하여
- 매주 목요일 진행되는 성인장애인의 모임인 Tacoma Milal Academy를 위하여
- 시애틀, 헤더럴웨이, 타코마의 사랑의교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도록
- 타코마제일침례교회의 사랑부(장애인)사역을 위하여
- 시애틀 형제교회 장애인 주일학교 Star Ministry(장애인)를 위하여

■ 밴쿠버

사랑의교실 토요일모임 'Happy Together'

2023년에도 사랑의교실에 참여하는 친구들과 밀알러, 친구들의 가정들과 밀알러의 가정들, 밀알사역을 후원해주시는 밴쿠버 밀알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배풀어주시는 사랑 안에 함께 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의교실 예배는 지난 학기에 이어 사도행전이 말씀하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 밀알의 모습을 그려가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1월21일은 성산교회 청년부가 방문하여 사랑의교실 전체 프로그램을 함께 했고, 2월4일은 팔로우교회 교인들이 방문하여 예배와 점심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 날, 생일축하하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축복했고, 2023년 첫 자모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점심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21일 김병진(크리스천신문대표), 1월28일 조이플교회(담임목사 김영남), 2월4일 팔로우교회(담임목사 김효선), 2월11일 방호복(RENU Bio Health 대표).

밀알행정과 감사

1월은 새해를 시작하는 달이기도 하지만, 지난해 동안 밀알을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세금감면에 소용되는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는 달이기도 합니다. 후원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로, 시간을 내어, 식사준비로,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한 해 동안 밀알과 함께하시어 장애인선교사역에 동역해주신 모든 분들, 교회들, 기업들, 기관 단체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밴쿠버밀알 및 밀알러

올해 지역교회 및 관심 있는 그룹들과 '장애인 선교'에 관하여 밀알사역을 나누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삼성교회 선교주간에 참여했고, 밴쿠버에서 예배와 찬양사역을 하는 여러 그룹이 모이는 our worship에도 참여하여 서로의 활동과 비전을 나누게 되어 감사합니다.

밴쿠버밀알 봉사자 Alumni가 <밀알러>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인 출범을 앞두고 준비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밴쿠버밀알 봉사자 그룹은 앞으로 <밀알러>라는 이름으로 연대하고 결속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본격적인 준비의 시간으로 설정하고, 현재 봉사하고 있는 밀알러와 OB밀알러들이 만나 친교하며 생각들을 나누는 기회를 가능한 여러 번 가지면서, 좋은 출발을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직이 잘 이루어지고 많은 선배 밀알러가 참여하여, 우리 친구들은 물론 밴쿠버에 사는 장애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뱅크버밀알 굿즈프로젝트 <투게더>

<투게더> 프로젝트에 모든 밀알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친구들에게 더 좋은 경험과 삶을 만들어주고자 활동합니다. 사랑의교실에 참가하는 친구들과 공동작업으로 굿즈를 제작하여 판매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크리스피크림도넛 펀드레이징 같은 행사들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공유합니다. 5월경에 올해의 첫 굿즈 판매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투게더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잘 돕고, 뱅크버밀알 사역에 인적, 물적 리소스를 넓히는 결과를 얻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뱅크버밀알 기자단 활동

뱅크버밀알 1기 기자단에 이어 2기 기자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뱅크버밀알 뉴스'를 유튜브를 통하여 나누고, '밀알 뉴스레터' 발간과 '밀알&세계 원고' 기고 등을 담당합니다. 밀알의 즐겁고 행복한 소식과 모습들이 더 잘 알려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뱅크버밀알 홈페이지 vancouvermilal.com

뱅크버밀알 홈페이지에서 밀알러, 기자단이 전하는 소식 등을 보실 수 있고, 굿즈프로젝트(투게더)에 대한 안내 및 주문을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뱅크버밀알의 여러 정보들과 활동사진, 영상 등도 같이 보실 수 있고, 밀알봉사지원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밀알 봉사하실 분 함께 해 주세요

봉사하실 분들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뱅크버밀알은 매년 1월과 9월에 정기 봉사자 오리엔테이션을 엽니다. 뱅크버밀알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방법: vancouvermilal.com > Milaler > Prospective Milaler > Click to apply at Milal 밀알봉사자는 함께 성장하는 경험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e-transfer 후원방법 안내

밀알 후원을 e-transfer로 하실 수 있습니다 (finance.vanmilal@gmail.com). 많이 이용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The Prayer' & 'The Bridge'

<The Prayer> 밀알선교사역을 위한 중보기도에 헌신하실 분을 찾아 함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The Bridge> 월 \$10 정기후원하실 분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604-339-4417, 단장 이상현 목사).

기도와 동역을 부탁드립니다

-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장애인의 회복으로 표상되는 하나님나라의 임함에 쓰임 받게 하소서
- 지역교회와 함께 장애인선교의 사명을 이루어 가게 하소서
-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좋은 봉사자, 기도 및 재정 후원자들을 붙여 주소서.
- 뱅크버밀알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을 축복하시며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 뱅크버의 장애인들과 그 가정들이 밀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게 하소서.
- 뱅크버밀알 Goods Project: <투게더>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잘 돕고, 뱅크버밀알사역에 인적, 물적 힘을 더

하는 결과를 얻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좋은 봉사자들이 많이 지원하여 함께 할 수 있도록, 뱅크버밀알봉사자가 잘 조직되어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 뱅크버밀알을 후원하는 분들을 축복하소서. 후원자 개발과 펀드레이징 사역을 인도하여 주소서. <협력간사모임>과 <대외협력팀>의 활동을 통해 많은 분들이 동참하여 뱅크버밀알이 새로운 차원의 사역을 열어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 기도와 성령으로 섬기는 밀알, 하나님을 경험하는 밀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밀알, '사람을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역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밀알로 세워주소서.
- 밀알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만나고, 자신을 새롭게 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교실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얻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소서.
- 단장님과 사모님, 가정이 성령충만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 뱅크버의 장애인들과 그 가정들이 밀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게 하소서.
- 올해에는 지역교회 및 관심 있는 그룹들과 장애인 선교하는 밀알사역을 나누는 기회를 더 많이 갖게 하옵소서.

텍사스

토요 사랑의교실 (1월)

14일: 겨울방학을 마치고 2023년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매일 삶속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배 후에 성경공부와 언어활동 시간을 가졌는데, 'Yes Lord I am here to listen'을 sign language로 배웠습니다. 그 이후에 Sports 시간에는 대근육기술을 높이기 위해 킥 연습을 하였고, Art & Craft와 Music therapy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우리교회 지역사회 섬김부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음식으로 점심을 섬겨 주셨습니다.

21일: 찬양을 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Art & Craft시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가진 The Ark of God을 만들어 보았고, 그 이외에 성경공부, 언어활동, 스포츠, 음악치료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라이브하우스달라스교회에서 오셔서 맛있는 점심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28일: 오늘 설교 말씀 시간에는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을 배웠습니다. 예배 후에는 성경공부, 언어활동, 스포츠, Art & Craft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예일호 집사님 가정에서 여러가지 특별한 음식으로 점심을 섬겨 주셨습니다. 헌신과 수고에 모두 감사드립니다.

점심식사로 섬겨 주실 교회나 개인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임현정 전도사 267-815-6211)

청년오케스트라 단원 및 아카데미 학생 모집

텍사스밀알선교단에서는 악기를 배우고 싶은 장애인에게 악기 및 성악 레슨을 실시합니다. 또한 2기 밀알청년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합니다. 단원으로 활동하기 원하는 장애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그리고 악기를 배우는 아카데미 학생들도 밀알 청년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에 참여하게 됩니다.

- 모집부분: 첼로, 바이올린, 플루트, 피아노
- 레슨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1:00~
- 레슨비용: 무료 (전문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인악기는 구비하시거나 렌트하시면 됩니다.
- 장소: 한우리교회 미션센터(1835 Pearl St, Carrollton, TX 75006)
- 신청방법: 다음 링크로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form.jotform.com/222903824523150
- 문의: 267 815 6211, txmilal@gmail.com

밀알 청년 성경공부

매주 토요일 5시에 장애 청년들과 성경공부를 합니다. 공부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 홀리스 사역 등 말씀을 실천해가는 과정에 함께 합니다. 성경공부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채경수 단장에게 문의하세요.(267-467-5971)

하요 온라인 기도모임

기도모임 때마다 말씀을 나누며 말씀에 의미를 밀알사역에 적용한 기도를 하며 시작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한 내용 중 응답되어진 것들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장애인도 선교의 대상이라는 뚜렷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주세요. (문의 267-467-5971 채경수 단장) Zoom ID: 895 0864 4965 / Passcode: 152562

목요 성인모임

매주 목요일, 뇌졸중 장애인과 함께 뇌신경학적 음악치료를 통한 언어 및 신체 재활 훈련을 실시하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목요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신체 장애인은 문의해주세요.

5차 사랑나눔 실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쌀, 라면, 잡곡, 김 등의 식료품을 나눠주는 사역이 작년 9월에 시작하여 지난달에 5번째 전달을 하였습니다. 지역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 텍사스밀알을 통해서 장애인이 영적으로 회복되며 구원받을 수 있도록.
-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원 봉사자를 보내주소서.
- 사역자들이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 사랑의교실에 참여한 장애인과 그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 목요모임에 복음이 필요한 뇌졸중 장애인을 보내주소서.
- 밀알 오케스트라의 단원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단원을 보내주시어 음악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오케스트라 되게 하소서.
- 전문자원봉사자로 함께 동역할 사람을 보내주시어, 밀알 사역이 다양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 2023년 사랑의교실, 점심을 섬길 동역자를 보내주소서.
- 지역 교회 중 장애인 선교 사역에 동역할 교회와 교회 리더십을 허락하소서.
- 새로운 사역을 위한 협력자를 보내주시고, 사역을 진행함에 소조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소서.

재정보고 2023년 1월

Southern California

■ INCOME: \$27,382.75

Individuals: \$4,065.00 \$30 Hyoung Il Seo, Youn G Ro, Jenny Jiyoun Lee / \$50 Hye Ran Lee, Unshil Shin / \$70 Paul Kim / \$100 Kyung Won Kang, Mee Seob Lee, Kyung Sook Kim, Chun C. Gamble, Ho Myoung Lee, Hyun Pack, Annie Insook Yim, Kathy Park / \$150 Helena Chung, Jeanne Myung / \$200 Jaemin Youk / \$245 Jihyun Ryu / \$300 anonymous, Jong Hyun Koh, Douglas Young Woo Yeo / \$360 Brian Pak / \$500 Inju Uyehara, Hong Royong Kim

Churches & Businesses: \$9,500.00 \$50 Alabama Full Gospel Church / \$100 Inland Olive P.C, The Gamsa Community Church, Gamsa Mission Foundation / \$200 Bank Card Services, Bethel Korean Church, Light of Love Mission Church, El Paso Central Baptist Church, Living water Mission Church, Kay Uniform / \$250 Ace Tech Auto Center, Inc / \$300 Berendo Street Baptist Church, Shalom Church of Southern CA, Cerritos Presbyterian Church, Full Gospel LA Church, Sarang Community Church, H.D. Grace Church, Lord's Community Church, The Church of Joy, Cornerstone Church, Gana Church, Irury LLC / \$500 NGL Transportation, General Metal Recycling Co. / \$900 Thanksgiving Church / \$1,000 Law office of Steven C Kim & Associates / \$1,500 Friendship Beyond Borders Inc.

Specials & designated income: \$13,817.75 <\$1,218 Camp Fundraising>(\$700 OC Class AGAPE: \$100 Minsuh's mom, \$600 Yun Sun Byon)<\$2,691.25 Texas Milal>(\$450 Rent)<\$1,000 Julianne Lee Designated to Jong Hoon Lee>(\$5,758.50 EFSP Grant)<\$2,000 New Spirit Church>

■ EXPENSE: \$37,853.90

Payroll Expenses: \$16,184.80 \$11,835 Salaries & Wages / \$1,449.80 Payroll tax / \$1,000 Employee benefit / \$1,900 Housing support

Public Support: \$2,976.49 \$500 Palm Mission Church / \$500 Visitation Support / \$77.49 Congrat. & Condol(\$42.49 Pastor Shin's birthday, \$35 H.D. Grace Church flower letters) / \$715 Sharing Love(\$115 End of year party gifts, \$600 Tuesday meeting dinner) / \$1,184 Brazil, Argentina, Paraguay Support

Admin & Management: \$7,539.97 \$3,431.73 Rent / \$444.17 Equipment rent / \$140.36 Telephone & internet / \$348.38 Electric / \$639.50 Office Supplies / \$651.50 Legal & Professional / \$1,768.02 Alliances Fee for America Milal / \$116.31 SBA EIDL interest

Media Mission: \$4,980.10 \$2,744 Milal&World Publication / \$1,329.30 Milal&World shipping & handling / \$147.80 Vancouver Milal&World shipping & handling / \$375 PO Box Annual Renew & monthly Deposit / \$384 Website Annual Renew

Meeting & Events: \$1,300.85 Periodic Meeting

Class AGAPE: \$1,750.80 -\$576 Teachers' Compensation / \$88.99

Learning Materials / \$1,113.07 Class Meals & Snacks / \$82.14 Class Supplies / \$1,042.60 Events & Meetings

Camp Fundraising: \$1,541.04 \$1,457.60 Hazelnut Powerbean 90 lbs / \$83.44 coffee fragrance pouch

Auto Expense: \$1,579.85 \$397.45 Ford / \$471.78 Sienna / \$337.29 Gas / \$11.33 Interest / \$362 Maintenance

Previous Carry over Balance: -\$4,218.08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14,689.23

■ 남가주밀알 장학 재정보고

INCOME: \$15,650.00 <Church & Businesses \$650: \$200 Irvine Onnuri Church / \$300 Phila Milal / \$150 Atlanta Milal> <Specials & designated \$15,000: \$1,000 J&J / \$3,000 Milal Night Brochure: James Worldwide / \$11,000 Other Milal Night Contribution: Beautiful Church, James Worldwide>

EXPENSE: \$36,526.51 <Scholarship \$35,559.80: \$6,000 Collegians / \$3,000 Third Countries / \$3,759.80 Reserved Ministers Supports / \$10,000 Moon Foundation / \$10,000 James Worldwide / \$1,000 J&J / \$1,800 Volunteers Aids> <Award Ceremony \$966.71>

Previous Carry over Balance: \$188,704.38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177,713.82

Northern California

■ INCOME: \$11,755.37

Individuals: \$4,110.00 \$20 최중순&명환 / \$40 김신자 / \$50 Hyo S. & Hea J. Jung, 이우성, 정찬미&석권, 주혜경, 무명 / \$100 Young & Ye Kim, Klepeis Family, 공은정&공명진, 김만중&정애, 유정해 / \$150 최기성 / \$200 배매희, 최영호&재현 / \$250 연성식&명숙 / \$300 김정기 & 남경아, 오영수 / \$400 이지선&학천 / \$500 김성준, 김현석&귀옥, 차현상&김은미

Church: \$4,037.00 \$57 산호세새소망교회 / \$100 산호세밸리교회, 산호세순복음중앙교회, 한사랑교회 / \$200 the Light of Christ Church, 이스트베이한빛교회, 종은땅침례교회 / \$280 임마누엘장로교회(전연실목장) / \$300 심포니교회, 임마누엘장로교회 / \$600 몬트레이소망장로교회, SF사랑의교회 / \$1000실리콘밸리장로교회

Business \$2,758.37 \$28.37 IBM Employee services center / \$50 Golden Key Fine Jewelers / \$100 Subway Sandwiches, Luxe Apparel / \$500 이학천CPA / \$1980 AMER

Designated income: \$850.00 <사랑의교실 \$350: \$100 김정기&남경아 / \$250 산호세영락교회> <청년밀알 \$200: 엠마오선교원> <화요예배 \$300: \$100 김정기&남경아 / \$200 전송화>

■ EXPENSE: \$14,980.03

Mission Expense: \$10,907.67 사례비(5인) \$7,085.24 / 선교활동비 \$283.49 / 미주밀알지원 \$933.70 / 남미밀알지원 \$1000 / 출장비 \$1,182.25 / 은급비 \$300 / 화요예배 \$22.99 / 경조비 \$100

Admin. & Management: \$2,322.34 전화&인터넷 \$221.77 / 기타사무비 \$273 / IRS Tax \$477.57 / 사무실임대료 \$1,200 / 4Q2022회계 \$150

Auto Expense: \$371.07 유류비 \$299.98 / 차량수리 \$71.09

Media Mission: \$1,378.95 밀알&세계발송비 \$271.46 / 밀알&세계인쇄비 \$1,089.6 / 웹관리 \$17.88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86,477.42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83,252.76

Seattle

■ **INCOME: \$9,280.00**

Individuals: \$5,010.00 \$20 윤유순, 정은옥 / \$30 남숙희, 황영자 / \$50 이영자, 장옥현, 오수미, 박진경X2 / \$60 류준명 / \$100 노현숙X2, 송인숙 / \$200 김미란 / \$300 정남수 / \$400 장영준&장아련 / \$600 이명운, 무명 / \$1,000 권상길 / \$1,200 김백합자

Church: \$3,550.00 \$100 벤쿠버사랑장로교회, 자유교회, 예수안교회, 순복음큰빛교회, 벨링햄화평교회, 퓨얼럽한인장로교회, 타코마삼일교회 / \$150 페더럴웨이벤엘침례교회 / \$200 시애틀브리지교회, 선한이웃교회 / \$400 시애틀평강장로교회 / \$500 켄트제일장로교회 / \$600 시애틀한인장로교회 / \$800 시애틀행복한교회

Business: \$400.00 \$100 Fair Ridge Law Firm / \$300 무명

Designated income: \$320.00 SMA&TMA

■ **EXPENSE: \$16,126.92**

Mission Expense \$3,231.38 / Admin & Management \$844.32 / Media Mission \$1,589.78 / Class AGAPE \$1,122.62 / Dues to LA \$1,190.64 / Tuesday Meeting \$956.55 / Auto Expenses \$1,714.31 / Outreach & Retreat \$1,000 / Tax \$367.99 / Special Event \$2,718.19 / Family Events \$450 / Insurances \$125.41 / Mission \$200 / Pastoral Visit \$315.73 / Retirement Plan \$300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92,428.39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85,581.47

Vancouver

■ **INCOME: \$5,489.00**

Individuals: \$2,589.00 \$10 김형용, 계영실 / \$20 이경순, 한은순 / \$30 원소현, 테레사최 / \$50 김형운, 이혜영, 이윤도, 오정석, 강시영, 진훈 / \$100 황신혜, 하준석, 곽혜경, 김계은, 이상현유혜정 / \$200 문미경, 윤영로 / \$234 김민정 / \$1,000 박혜은

Churches & Businesses: \$1,200.00 \$100 헤브론교회주향기목장(1월) / \$200 Oronia Ltd. / \$900 그레이스한인교회(1/4)

Specials & Designated income: \$1,700.00 <1월예배헌금 \$1,200: \$10 오예찬, 윤관진, 김토니, 무명 / \$20 이해, 서동구, 에드윈, 이유진, 김도건 / \$60 김민재 / \$100 한세영 / \$900 이민형> <designated \$500: Coram Deo(1월)>

■ **EXPENSE: \$9,965.04**

Payrolls: \$3,457.69 사례비(2인)

Mission Expense: \$3,690.04 활동비 \$18.04 / 밀알&세계(2022년분) \$3,132.00 / 대외선교(남미지단지원) \$540

Class AGAPE: \$193.47 <Happy Together Class \$61.60: 통신비> <봉사자 오리엔테이션 \$131.87>

Admin & Management: \$644.22 <General \$144.22: 통신비 \$67.20 / 사무비 \$67.02 / 은행피 \$10> <렌트비 \$500: SPC(하반기2차)>

Taxes: \$499.97 payroll(1월분)

Insurance: \$240.00 Liability Insurance(2022-2023 미납잔금)

Auto Expense: \$739.65 운행비 \$310.15 / 뱅할부금(1월) \$429.54

Designated Expense: \$500.00 코람데오(1월)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12,117.36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7,641.32

Texas

■ **INCOME: \$4,462.55**

INDIVIDUALS: \$2,205.00 \$20 Heather Cho / \$25 방진원 / \$30 한성원 / \$50 김태남&이선화, 무명, 김희경, 정선혜 / \$80 정호영 / \$100 안재철, Daniel Yoon, 김지현, 이인성&임지선, Justin Kim, 손유진 / \$350 박근석 / \$400 채경수&임현정 / \$500 권진아

CHURCH & BUSINESS: \$1,707.55 \$7.55 interest / \$50 프렌즈교회, 포트워스제일장로교회 / \$200 JDX Mission, 나눔교회 / \$400 G3 달라스성결교회, 라이트하우스교회, Benevity Donation

DESIGNATED INCOME: \$550.00 \$100 무명(사랑의교실) / \$450 Texas Maintenance Development

FOOD SUPPORT: Escape Bakery, 한우리교회, 라이트하우스 교회, 예지혜 가정

■ **EXPENSE: \$3,982.77**

MISSION EXPENSE: \$1,886.65 ministry support \$1,000 / 밀알&세계 인쇄비 \$315 / 상회비 \$231.84 / 발송우편료 \$64 / 밀알사랑나눔물품 \$47.97 / 사역자&이사회 신년 모임 \$227.84

CLASS AGAPE & 청년성경공부: \$512.45 활동운영비 \$500 / 성경공부 교재 \$12.45

ADMIN & MANEGEMENT: \$1,583.67 장소사용료 \$200 / 은행, 카드 수수료 등 \$354.89 / IRS tax payment \$191.25 / 통신비 \$168.80 / 보험 \$205.46 / NTTA toll \$40 / 냄비, 밥솥 등 주방도구 \$423.27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13,327.40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13,807.18



밀알선교단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장애인 발굴, 장애인 방문 예배, 장애인 성경공부, 단원 정기모임, 병원전도, 사랑의캠프, 장애아동 사랑의 교실, 밀알지부 개척, 선교사 파송 및 지원

서로 어려움을 나눕니다

시각장애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녹음, 복지홈 운영, 수어통역, Ride 봉사

신앙공동체에 참사랑을 심습니다

교회 및 단체 방문 찬양과 설교, 수어교육, 밀알의밤, 장애인의 날 행사, 매월 <밀알&세계>발간, 장애인 선교방송

밀알선교단 후원을 위한 온라인 모금 결제 시스템 안내

저희 밀알선교단에서는 후원자분들이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밀알을 후원하시도록 하기 위해 '남가주밀알 홈페이지(<http://milalmission.com>)'에 Paypal 계좌와 크레딧카드 결제를 이용한 후원 모금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결제 시스템은 전체 미주밀알 후원을 위해 남가주밀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후원 모금 시스템으로, 남가주밀알 뿐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 결재된 후원금은 그 지역에 위치한 밀알선교단을 후원하게 됩니다. 후원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후원방법: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가까운 밀알선교단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밀알단원 신청서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이메일: _____

단원종류: 기도단원() 실행단원() 후원단원() 월 \$5() \$10() \$20() \$30() \$50() \$100() 그외 \$()

서명: _____ 날짜: _____

The World Milal Association 세계밀알연합

서울 동작구 솔밭로 97-6, 3층 / Tel: 02-533-9251 / Fax: 02-533-9258 / wmilal@worldmilal.org

American Milal Mission Inc. 미주밀알선교단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 Tel: 562-229-0001 / Fax: 562-229-0006 / wheatmissioninus@gmail.com

■ Milal Mission in Southern California 남가주밀알선교단 | www.milalsca.org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 Tel: 562-229-0001 / admin@milalsca.org

정기모임	OC	매주 목 오후 7:00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LA	매주 화 오후 7:00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밝은예배	매월 마지막 화요일 오후 7:00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사랑의교실	OC	매주 토 오전 9:00 ~ 오후 12:00	나침반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1:30	충현선교교회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동부	매주 토 오전 9:30 ~ 오후 12:30	선한청지기교회	2701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얼바인	매주 토 오전 9:00 ~ 오후 12:30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토렌스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1: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1880 Crenshaw Bl., Torrance, CA 90501
	성인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1:00	남가주밀알 사무실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 Milal Mission in Northern California 북가주밀알선교단 | www.milalca.com

871 Coleman Ave. Suite 205, San Jose, CA 95110 / Tel: 408-605-2134 / norcalmilal@gmail.com

장애인과 함께 나누는 예배와 찬양모임

정기화요모임	산호세	매주 화요일 저녁 6:30 ~ 9:00	세계선교침례교회(1,2,4,5주)	62 S.San Tomas Aquino Rd, Campbell, CA 95008
			산호세한인장로교회(3주)	770 Lucerne Dr. Sunnyvale, CA 94085
사랑의교실	산호세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4:00	산호세새소망교회	2900 Patrick Henry Dr. Santa Clara, CA 95054
	산타클라라	매주 토 오전 10:30 ~ 오후 3:30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1001 Ginger Lane, San Jose, CA 95128

■ Milal Mission in Seattle 시애틀밀알선교단 | www.seattlemilal.com

8506 238th St. SW, Edmonds, WA 98026 / Tel: 425-444-1669 / Fax: 425-774-2499 / seattlewheat@yahoo.com

사랑의교실	시애틀	매주 토요일 오전 10:30 ~ 오후 3:00	시애틀연합장로교회	8506 238th. SW, Edmonds, WA 98026
	웨더럴웨이	매주 토요일 오전 10:30 ~ 오후 3:00	웨더럴웨이중앙장로교회	37505 28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Seattle Milal Academy (성인 장애인)		매주 화요일 오전 10:30 ~ 오후 3:00	시애틀형제교회	3700 Monte Villa Pkwy. Bothell, WA 98021
Tacoma Milal Academy (성인 장애인)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 오후 3:00	타코마중앙장로교회	8001 Pine St. S. Lakewood, WA 98499

■ Milal Mission in Vancouver 밴쿠버밀알선교단 | www.vancouvermilal.com

Instagram: @Vancouver_milal | Youtube: @Woorilog 우리로그, @Vancouvermilal 밴쿠버밀알

14625 108 Ave, Surrey, Upper Room, BC, V3R 1V9 CANADA / Tel: 604-339-4417 / vanmilal01@gmail.com

사랑의교실	토요모임 Happy Together	매주 토요일 오전 10:00 ~ 오후 12:00	써리장로교회	15964 88th Ave., Surrey, BC, V4N 1H5
			예배, 작업치료, 음악, 댄스, 사진, 크래프트, 운동, 레크레이션, 베이킹, 공동식사, 아웃팅) 난타교실	

■ Texas Milal Mission 텍사스밀알선교단 | www.txmilal.org | www.facebook.com/texasmilal

1313 Valwood Pkwy #200, Carrollton, TX 75006 / Tel: 267-467-5971 / Fax: 682-292-1365 / txmilal@gmail.com

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 오전 9:30 ~ 오후 1:30	한우리미션센터	1835 Pearl St. Carrollton, TX 75006
밀알성경적상담	매주 월~금 오전 10:00 ~ 오후 3:00	밀알선교센터	1313 Valwood Pkwy #200, Carrollton, Tx75006
목요모임(성인 장애인)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오후 8:30	한우리미션센터	1835 Pearl St. Carrollton, TX 75006
밀알 청년오케스트라	매주 토요일 오후 2:00 ~ 오후 4:00	한우리미션센터	1835 Pearl St. Carrollton, TX 75006
화요 온라인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	Zoom ID: 895 0864 4965 / Passcode: 152562	

전세계에 퍼져있는 밀알들

세밀연 미주총단 워싱턴 / 리치몬드 / 캐롤라이나 / 필라델피아 / 시카고 / 뉴욕 / 뉴저지 / 애틀랜타 / 시애틀 / 북가주 / 남가주 / 텍사스 / 마이애미 / 캐나다(토론토)

밴쿠버 / 브라질 / 파라과이 / 아르헨티나 / 과테말라

세밀연 유럽총단 북부독일 / 중부독일 / 남부독일 / 베를린 / 오스트리아 / 프랑스 / 스페인 / 포르투갈 / 헝가리 / 벨기에 / 우크라이나 / 바르셀로나 / 베오그라드 / 코소보

세밀연 한국총단 경기 / 전남동부 / 김포강화 / 거제통영 / 목포 / 부산 / 수원 / 용인 / 고양 / 구미김천 / 양산 / 경기광주 / 고흥보성

기타지역 뉴질랜드 / 호주 / C국(A,B) / 방글라데시